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10

2021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침묵에 기대다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주세요

법정 스님 독서 노트 III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보현행원품 IV

4. 법정 스님 잔소리

그 마음을 열어라

5. 선재등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온갖 선한 법을 내라

6. 불일암 구석구석

타고 남은 것들의 시간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가을비에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대구 경남 광주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11번 접어서 24절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쓰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1년 10월 1일 발행, 통권 320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침묵에 기대다

가을바람이 선들거리면 불쑥불쑥 길을 떠나고 싶은 충동에 산거(山居)를 지키고 있기가 어렵다. 그리고 맨날 똑같은 먹이와 틀에 박힌 생활에 더리는 염증이 생기려고 한다. 다른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다가도 해마다 10월 하순께가 되면 목은 병이 도지듯 문득 나그네길을 떠나고 싶다.

그날도 점심 공양을 끝내고 세상 소식 좀 듣다가 여느 때처럼 뜰에 나와 장작을 패고 있었다. 오동나무와 후박나무에서 마른 바람결에 푹푹 지는 낙엽을 보고 있으니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서둘러 짐을 챙겨 가지고 길을 떠나 오고 말았다.

삶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실감한다. 그 어떤 형태의 삶이라 할지라도 틀에 갇혀 안주하다 보면 굳어진다. 굳어지면 고인 물처럼 생기를 잃는다. 사람은 동물이라 움직임이 없으면 무디어지고 또한 시들고 만다. 살아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 변화가 없는 삶은 이내 침체되고 무기력해진다. 그리고 진부하고 지루해지게 마련이다. 생활에 리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다.

다행히 우리 같은 종류의 인간들은 걸리적거리는 관계의 이웃이 없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손쉽게 떠나올 수 있다. 물론 자기 자신의 무게 말고도 공동체의 무게에 대한 연대감이라는 짐을 지고 있긴 하지만.

혼자서 나그네가 되면 가장 투명하고 순수해진다. 낯선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눈을 뜬다. 자기 모습이 뚜렷이 드러난다. 개체가 된다는 것은 곧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사람은 이와 같은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축적하게 되고,

일을 통해서만 휴식을 얻을 수 있다. 평소에 일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휴식도 누릴 수 없다. 휴식과 일은 그런 상관관계를 지닌다.

이제 새삼스럽게 구경거리를 찾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할 필요는 없다. 어디를 가나 토막 난 비좁은 땅덩이에서 거기가 거기이고 비슷비슷한 모습들이니까. 그 고장의 냄새를 맡는 일로써 나그네의 시장기 같은 것을 채우면 된다.

표현은 '냄새'라고 했지만 또 다른 말을 쓴다면 분위기를 느끼는 일일 것이다. 낯선 고장에 가면 우선 시장에 둘러 보라. 거기 가면 그 고장 특유의 말씨가 있고 생활이 있고 인정과 습속과 빗깔이 있다. 그 말씨와 생활과 인정, 습속, 빗깔이 그 고장의 분위기를 이룬다.

이런 분위기를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머리로써가 아니라 텅 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머리는 어떤 의미에서 불순하다. 따지고 캐고 의심하고 자꾸만 묻기 때문이다. 그 같은 잿빛 이론과 논리가 우리를 지금껏 피곤하게 하면서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해 해 왔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트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한평생을 두고 우리가 가진 능력의 5퍼센트밖에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어째서 우리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 가운데서 겨우 5퍼센트밖에 쓰지 못한단 말인가. 그것은 마음이 겹겹으로 닫힌 채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계와 사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써 따지고 쪼개고 의심하면서 거기에 이유를 달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텅 빈 마음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마침 불일도 있어 부산에 내려갔다가 아침 일찍 자갈치 시장을 들렀다. 언제부터 한번 들르고 싶은 곳이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큰마음 먹고 들르게 되었다. 생선을 경매하는 이 자갈치 시장은 분명히 부산 특유의 분위기고 명물이다.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노래하듯 숫자를 읊고 수화로 말하는 경매 풍경은 판세상 일처럼 느껴진다. 바로 그 곁에는 즐비한 생선가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인연이 먼 생선이지만, 거기 비릿 비릿한 생의 열기 같은 것이 넘쳐 아침 바닷가를 더욱 신선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회사의 사무원이나 관공서의 공무원에 견주면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이루고 있는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살고 있다. 그들은 관념적인 인간이 아니라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탄탄한 사람들이다. 곁에서 보기만 해도 생의 열기가 묻어오는 것 같다.

어제는 모슬포에서 신창 쪽으로 가는 길목 동일리東日里 바닷가에서 수평선으로 지는 장엄한 일몰을 '참배'했었다. 굳이 참배라는 말을 쓴 것은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맑고 고요하고 숙연한 침묵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진실로 신비롭고 아름답다.

풀끝에 맺힌 이슬만 하더라도 그렇고, 해가 지는 모습과 저녁노을만 하더라도 그지없이 신비스럽고 아름답다. 추한 것은 우리들 인간뿐인가 싶으니 자연 앞에 서기가 조금은 미안하다.

한라산 자락마다 억새풀이 허영게 은발을 휘날리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목장에서 양 떼들이 혹은 말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험벗고 때 묻고 초라한 존재는 갈데없는 우리들 인간이구나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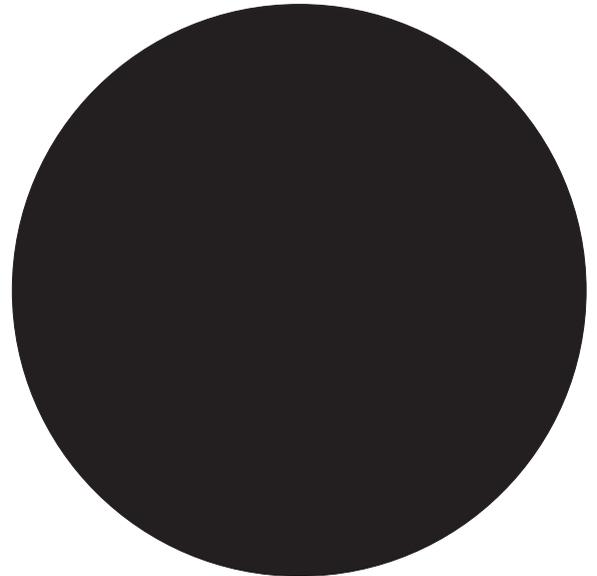
모든 존재는 다 자기의 분수대로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사람만이 그 조화에서 이탈하려고 자꾸만 몸부림을 치고 있다. 같은 인간끼리 미워하고 싸우면서 그 조화와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

이다. 모든 존재는 묵묵히 우주 질서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떠들며 살벌하다. 오늘날 지구가 곳곳에서 갖은 형태로 폭발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분수 밖의 행동으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 메아리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더 물을 것도 없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확고한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안팎으로 어지러울 때에는 신앙인이 아니라도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한다.

기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귀 기울이는 일이다. 입을 다물어야 깊은 뜻을 지닌 말씀들을 들을 수 있다. 침묵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따금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침묵의 세계에 기댈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주의 조화에 동참할 수 있다.



법정 스님이 1993년에 쓰신 글입니다. 이제 여기 옮깁니다.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법정 스님 독서 노트 III

존재와 소유의 차이를 찾아가는 에리히 프롬의 행적을 무소유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법정 스님의 독서 노트. 한 마음, 한 물건이 언제나 존재의 빛이 되고, 또 언제나 속박의 사슬이 되는 지 꼼꼼히 가려봅니다.

“*” 표시된 글은 법정 스님이 당신 생각을 적은 것입니다.

속박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과 행동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소유물에, 심지어 신에게도 묶이거나 속박받지 말아야 한다.

집착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할 때, 그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간섭하고 사슬이 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자기 실존을 방해한다.

소유할 때

영어에서 소유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 private는 ‘빼앗는다’는 뜻의 라틴어, privare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성의 실현

자기 종의 본성, 인간이라면 인간성의 완전한 실현이 생활의 목적이다. 우리가 인간성의 표준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유와 안녕은 점점 더 커진다. / 스피노자

만족스런 성장

비이성적 열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정신적으로 병든

것이다. 우리가 만족스런 성장을 이룩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강하고 이성적으로 즐거울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 스피노자

진정한 연인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주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진정한 연인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그의 사랑 안에서 전 세계를 사랑한다.

실로 어려운 즐거움

속이 참으로 깨끗한 사람은 밖에 불결한 것이 남아 있을 수 없다.

소유 관계

대체로 소유 관계는 무겁고 부담스러우며 대립과 질투로 가득 차게 된다.

진짜 기쁨

쾌락이란 욕망의 충족. 이것들은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진짜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

기쁨은 빛이다

기쁨은 생산 행위에 따른 부수물이다. 기쁨은 순간적인 몰아의 불꽃이 아니다. 기쁨은 존재와 함께 오는 빛이다.

* 석가와 에크하르트와 마르크스 그리고 시바이처의 사상은 뚜렷한 유사점이 있다. 소유적 지향의 포기에 대한 극단적 요구, 완전한 독립의 주장, 형이상학적인 회의론, 신이 없는 종교성, 그리고 보살핌의 정신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갖는 사회적 향유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보현행원품 IV

법정 스님이 전하는 보현보살의 행과 원, 9월에 이어 계속 따라갑니다.

인도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 수행자가 숲속에서 홀로 살았다. 어느 날 다른 수행자 한 사람이 찾아와 그에게 바가뱃드기타, 곧 힌두교 성전 한 권을 주고 갔다. 수행자는 날마다 그 책을 읽었다.

어느 날 쥐가 책을 쏙아 버렸다. 그러자 쥐를 쫓기 위해 고양이를 한 마리 구해다 기르게 된다. 고양이에게 먹일 우유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젓소를 길렀다. 이렇게 되자 그는 이 짐승들을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해졌다. 여자를 한 사람 구했다. 이렇게 숲속에서 몇 해를 지내다 보니 커다란 집과 아내와 두 아이와 고양이 떼와 젓소들과 온갖 세간살이가 쌓여 갔다.

그러자 수행자는 걱정이 되었다. 그는 혼자서 살 때 자기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제 그는 신을 생각하는 대신 아내와 아이들과 젓소와 고양이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한 권의 책, 곧 소유물이 이토록 엉뚱한 결과를 몰고 온 것을 알고 한숨을 지었다. 우리 눈과 귀를 채우는 수많은 상품 광고를 만날 때 이 성자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필요없는 것을 제거하고 일이 곧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단순, 투명한 단순함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가 담긴 경전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이 있다.

하나. 2,5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지 말 것.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난 일로 알아야 한다.

둘. 거기서 나오는 등장인물을 저마다 자기 자신으로 여겨야 한다.

셋. 외형적인 표현에 팔리지 말고, 무엇을 말하기 위해 그와 같은 표현을 썼는지 그 뜻을 캐내야 한다.

넷. 건성으로 읽지 말고 음미하듯 한 귀절, 한 귀절 받아들인다.

다섯. 그리고 경전의 가르침을 자기 마음속에 비추어 보라. 이런 말이 있다.

심불반조 간경무익心不反照 看經無益

마음으로 비추어 보지 않으면 경전 보는 것은 무익하다.

여덟째 행원은 상수불학常隨佛學, 곧 늘 부처님을 본받아 배움이다.

보현보살이 말한다.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고,

수없이 많이 몸과 목숨을 보시하고,

경전 쓰기를 수미산만큼 하였다.

부처님은 법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면 제왕의 자리나 재산이며,

참기 어려운 고행이었겠는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던 일과 여기저기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법을 설하여, 중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마침내 열반에 드신,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본받아 배운다.”

가르침은 배우라고 있고 길은 가라고 놓여 있다.

배우지 않으면 가르침은 소용없고 가지 않으면 길은 필

요없어진다.

옛 성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앞날에 밝은 지표가 된다.

옛사람들의 자취에서 많은 지혜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적어도 불자들은 불타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는 환히 알아야 한다.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시사한 잡지는 거르지 않고 받아 보면서,

성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반성하자.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불자이면서도 불교에는 문맹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식 불교를 믿고 있다.

막연한 불교.

불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쏠린다.

결핍하면 점집에 가고 사주나 관상 보러 가면서

어디 절에 나가는 아무개 보살이라고 자처한다.

많이 알기보다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일이 소중하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밖으로 쳐다보려고만 말고,

안으로 들여다보는 생활 습관을 익혀야 할 것이다.

뒤편지 가득 채우려고만 말고 텅텅 비우는 일을 익혀 둘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눈이 뜨인다.

11월로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잔소리

그 마음을 열이라

이달 스님 잔소리는 용서할 줄 모르고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우리네 마음보를 꾸짖는 일갈입니다. 불교는 오로지 관용과 자비의 종교임을 기억하라는 말씀. 1986년에 경주 동국대학교에서 있었던 강연 내용에서 옮겼습니다

대립과 대결과 격돌의 시대다. 갈수록 건조하고 살벌한 세태를 보게 된다.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새삼스레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100년 전 사람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과연 인간이라고 보겠는가? 오늘날 우리에게서 예의, 염치, 체면 그리고 인간적인 품위와 양식을 찾기 힘들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간 상황이다.

몇몇 서구 학자들은 불교를 가리켜 “관용의 종교”라고 한다. 아놀드 토인비나 버트런드 러셀의 책에 그런 표현이 등장한다. 관용이란 무엇인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으뜸가는 덕’이 아닐 수 없다. 관용은 보편적인 사랑인 자비가 고도로 승화된 상태다. 따라서 관용은 불교의 실천 면에서 중심적인 덕이라 할 수 있겠다.

만약 내가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인생 전체를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한 개체나 한정된 울안에만 갇혀 있다면,

거기에서는 창조적인 활동도 관용도 나올 수 없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다시 말해 마음이 열리면,

인간은 어디서나 사랑을 느낀다. 나무나 짐승, 꽃이나 풀 잎 하나에도 사랑을 쏟게 된다.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려면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적대감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증오는 된서리, 연못이 얼어붙고 연꽃의 줄기를 부러지게 하는 서리나 마찬가지로 가시다.

마음이 열려야 세상과 나는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한정된 울안에서 갇히게 되면, 자유와 평화의 날개가 접혀져서 훨훨 마음껏 날 수 없다. 토인비는 그의 책 《대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은,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킨 사람들, 즉 관용에 의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해방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인류 역사상 실존했던 불타 석가모니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그런 사람으로 들고 있다.

겸손이나 겸양에는 자칫 위선이 끼어들 수 있지만 관용에는 위선이 발붙일 틈이 없기 때문에 최고가는 덕이 된다.

불교의 근본정신은 관용과 화합이다.

불자라면 마음을 열어야 한다.

닫힌 마음으로는 불자가 될 수 없다.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온갖 선한 법을 내라

선재동자와 우리 일행은 12년을 찾아다니다 마침내 해탈 장자를 만났습니다. 합장하고 그에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으며, 어떻게 닦아 익힌 것이 빨리 청정해지고 분명해지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자 해탈 장자는 삼매에서 일어나 그가 본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9월 호에 이어 해탈 장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착한 법으로 자기 마음을 붙들고,
법의 물로 자기 마음을 적시고,
모든 환경에서 자기 마음을 깨끗이 다스리고,
정진으로써 자기 마음을 굳게 하라.
인욕으로써 자기 마음을 평온케 하고,
지혜의 증득으로 자기 마음을 결백케 하고,
지혜로써 자기 마음을 밝게 하고,
부처님의 자재함으로 자기 마음을 계발하고,
부처님의 평등으로써 자기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부처님의 열 가지 힘으로써 자기 마음을 비추고 살펴야 한다.

나는 다만 이 여래의 걸림 없는 해탈문에 드나들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걸림 없는 지혜를 얻고,
걸림 없는 행에 머물며,
모든 부처님을 항상 보는 삼매를 얻고,
열반의 틈에 머물지 않는 삼매를 얻었다.
그리고 삼매의 보문普門 경계에 통달하고,
삼세법에 다 평등하고,
몸을 나누어 여러 세계에 두루 하고,

부처님의 평등한 경계에 머물고,
시방세계의 경계가 다 앞에 나타남을 지혜로 관찰해 분명히 안다.

몸 가운데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나타내도,
자기 몸과 여러 세계가 둘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으니, 이와 같이 미묘한 행을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선재여, 이제 남쪽으로 가서 염부제의 경계에 이르면 마리가라摩利伽羅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해당海幢 비구가 있다. 그에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와 우리 일행은 해탈 장자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선지식을 의지하고
선지식을 섬기며,
선지식을 공경하고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를 보았으니,
선지식에게 거스르지 않고 아첨하거나 속이는 마음이 없으며,
선지식을 마음으로 항상 순종하자.

그리고 선지식이 자비스런 어머니라는 생각을 일으켜 온갖 무익한 법을 버리고, 선지식이 자비스런 아버지라는 생각을 일으켜 온갖 선한 법을 내게 하자고 다짐했다.

우리는 다시 남쪽으로 발길을 옮긴다. 해당 비구가 있다는 마리가라를 바라보고 길을 떠난다. 그러나 염부제의 경계에 있다는 그곳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6. 불일암 구석구석



타고 남은 것들의 시간

해가 짧아지고 날도 차졌다. 이때 불일암 텅 빈 공간은 소리와 향기로 바늘 하나 세울 틈도 없다. 풀벌레의 합창은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하루에 두 번, 참나무를 살라 일어나는 연기가 땅과 하늘, 나무와 짐승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물들인다.

아궁이를 출발해 방바닥을 덮히고 고래를 통해 굴뚝을 빠져나온 화목 향기는 빠짐없이, 막힌 곳 없이 불일암 경내를 토닥인

다. 후박나무 가지를 스쳐 지나 계단을 서서히 내려서서는 채 마밭에 남은 여치 베짖이 무당벌레들을 살포시 안아 주고 아래 채 섬돌을 지나 샘터에 닿는다. 잠시 물소리와 몸을 섞은 뒤 왼쪽으로 돌아 해우소를 향한다. 그곳에는 인간에서 나온 것과 나무에서 나온 것, 그리고 시간에서 나온 것들이 함께 산다. 이제 여기 내려앉은 연기, 불일암 해우소가 향기롭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가을비에게

여름을 다 보내고
차갑게
천천히 오시는군요

사람과 삶에 대해
대책 없이 뜨거운 마음
조금씩 식히라고 하셨지요?

이제는
눈을 맑게 뜨고
서늘해질 준비를 하라고
재촉하시는군요

당신이 오늘은
저의 반가운
첫 손님이니군요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에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학 장학생 사회 공헌 활동 진행 중

2021년 맑고 향기롭게 제2기 대학 장학생 16명이 3개 조로 나누어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는 설립 취지에 따라 '마음'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조용히 펼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맑고향기롭게조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는 지난 8월, 9월 성북구 사랑지역 아동센터의 고등학생에게 화상 수업으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대입, 진로에 대해 각자 전공에 맞춰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맑고향기롭게조 "놀면 뭐하니" 또한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저소득층 중, 고등학생 교과 학습지도 및 멘토링을 해 주었습니다. 자연을 맑고향기롭게조 "자원농원"은 비대면 활동으로 각자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3가지 미션을 계획하여, SNS 인스타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학 장학생들이 장학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 참여하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활동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학생들이 열정과 지혜로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이바지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생활 속의 소소한 고민을 보내면, 손 편지 답장을 해 드려요.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민과 사연으로 가슴앓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편이나 전자 우편으로 소소한 고민을 보내 주세요. 맑고 향기롭게 향기 우체부 봉사자가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담긴 손 편지 답장을 해드립니다.

보내 주실 곳은 <서울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맑고 향기롭게 향기 우체부 앞> 또는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생태 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길상사에 꽃 사진을 찍으러 오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봄부터 영춘화, 초롱꽃, 목단, 죽단화, 연꽃, 불두화, 영산홍, 금낭화, 작약, 산수국, 매발톱,

달맞이꽃, 석잠풀, 천남성, 능소화 등등 경내 화단에서 피어나는 꽃을 보며 시절의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꽃무릇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길상사 화단을 내 집 화단처럼 가꾸는 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상사에 피어나는 우리 꽃을 자신의 화단처럼 아끼고 가꾸는 일에 함께하실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법정 스님의 저서를 전자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법정 스님의 저서 21권을 전자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서를 읽으려면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등록해야 가능하며, 예전부터 후원하고 계시는 회원님은 홈페이지 재가입 시 후원금이 중복으로 인출되지 않도록 확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 전자책을 통해 회원님 저마다 맑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중앙 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밑반찬 2가지와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정월대보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럿이 모여 하는 조리 활동은 못 하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5일(화)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모자 뜨기 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 재정 후원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02)3672-5945/전송:(02)3672-5947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일시 : 10월 2일(토) /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코로나 성행으로 인해 강화된 중단 지침에 따라 이번 다라니 기도는 비대면으로 봉행되어 신도분들께서 직접 법당에 참석하실 수 없고, 길상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중계됩니다. / 9월~11월 다라니 기도는 입시생을 위한 특별 축원도 포함되오니 2022학년도 수능 입시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기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초하루 기도 / 법회

일시 : 10월 6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중양절(사업 성취 발원 기도)

일시 : 10월 14일(목) 오전 9시 50분/장소 : 극락전 / 코로나 등 각종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 중양절 사업 성취 발원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이 난관을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장재일

일시 : 10월 23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일시 : 10월 29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10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 기도명 / 법회 | 날짜 | 시간 | 장소 |
|------------|---------|-------------------------------|-----|
| 다라니기도 | 10월 2일 | 오후 6시~8시 30분 | 극락전 |
| 초하루기도 / 법회 | 10월 6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중양절 | 10월 14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지장재일 | 10월 23일 | 오전 9시 50분 | 지장전 |
| 관음재일 | 10월 29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극락전기도 | 매일 |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 극락전 |
| 지장전기도 | 매일 |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 지장전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